

광주 중3 학부모들 고입 '혼란'

자사고 폐지에 대입 연계 고교 진학 고심 상위권 학생들 진학상담 문의 잇따라

중3 학부모들이 때마침 입시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광주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 곳에 보낼 계획이었던 학부모들의 패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자사고로 보낼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로 보낼지, 일반고로 보낼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고교와 입시학원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고교 진학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 학원에서 대입과 연계한 고교 진학상담을 하는 등 중3 학부모들의 방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입제도가 해마다 바뀌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중3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다른 지역이라도 자사고에 보내야 할지, 집 가까운 자공고로 보낼지, 그냥 뱅뱅이로 일반고를 보낼지에 대한 물음이다"고 말했다.

이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고교 3년 과정과 대학입시 전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내신 성적·학생부 종합전형의 장단점, 학습 분위기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자사고는 내신에 불리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체계화하는 데는 장점이 있다.

수업료는 일반고보다 3배가량 비싸다.

반대로 자공고와 일반고는 자사고보다 상대적으로 내신은 유리하지만, 학생부 준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약점이 있다.

자공고와 사립고를 대비하면 사립고는 수신훈 쌓은 진학지도의 노하우가 있지만 자공고는 빈약하다. 반면, 사립고는 전체 학생을 두루 보살피지 않고 상위 40%이내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하다보니 여기에 속하지 못한 학생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공고는 자신의 원해서 가는 학교인 만큼 자부심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고에서도 사립고와 공립고의 차이가 있다. 이른바 같은 '뱅뱅이'지만, 우선 순위로 사립고 또는 공립고를 자신이 선택한다. 광주지역은 학력에서 사립고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립고에서 강압적인 학습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

광주의 한 입시 전문가는 "서울 주요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1학년 때부터 수시 로드맵을 세워 지도하는 자사고가 유리하다"며 "내신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광주에 자사고가 없어서 안타깝다"며 "어떤 일반고가 1학년 때부터 수시 로드맵을 짜고 디테일하게 지도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 자사고를 대응할 입시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준공 앞둔 사직공원 전망타워

18일 오후 광주 남구 사직공원에 건립중인 사직동 전망타워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직공원 전망타워는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해 노후된 기존 팔각정을 철거하고 높이 34.7m에 지하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하는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이다. 현재 공정을 80%로 오는 9월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

승덕고 내달 중순 일반고 전환

광주 승덕고등학교가 다음달 중순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2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승덕고에 제출한 일반고 전환신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학교 의견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정문과 교육부 협의 절차를 거친 뒤 교육감이 최종 고시하고 이를 승덕고에 통보한다.

일반고 신입생 접수일(12월22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공고를 내야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중순에는 일반고 전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승덕고는 일반고 전환 신청과 함께 학급 수를 2개 학급 늘려 총 10개 학급(남자 6개, 여자 4개)을 요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가인권위에 광주경찰청장 제소한 여운환씨

"부당사찰 항의... 조폭 수괴로 몰린 억울함 풀 것"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I파 '두목'으로 내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운환(60·아름다운컨텐츠 회장)씨가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동향보고)을 받았다며 광주지방경찰청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광주일보 8월 12일자 7면> '관리대상 폭력조직'의 경우 경찰이 주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제소가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는 이날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 20년간 수사기관의 조폭 리스트에 분류돼 거주지 관할 경찰서 형사로부터 동향보고 형식으로 수시로 사찰을 받아왔다"며 "정북 경찰관은 상부지시라는 이유로 순찰차를 타고 와 (나의) 거주지인 공동주택 경비실을 방문해 동정을 살펴가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동향 파악 대상에 올라 있는 것과 관련, "과거 흉준표 검사(현 경남도지사)가 자신을 폭력조직 수괴로 만들려고 했던 것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국제PI파 두목으로 기소됐던 사건은 범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경찰이 주기적으로 동향을 살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여씨 주장이다.

그는 국가인권위 제소 이유를 "조폭 '수괴'로 몰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지난 1991년 국제PI파 수괴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범죄단체 수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사찰로 가족도 피해 경제활동 제약 등 큰 고통 범죄단체 수괴 말도 안돼 조폭에 자금 준 적도 없어 흉준표 지사 사과해야

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던 호텔 오락실 영업활동을 보호받지 못한 탓에 국제PI파 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과 관련된 폭력사건의 수습대책을 맡아하는 등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마저도 "당시 호텔 오락실을 운영한 적도 없고 국제PI파에 10만 원도 상납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가 하면,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고 적혀 있는 공소 사실 중 두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적시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당시 지인들 사이에서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그는 "경찰의 사찰 행위로나 뿐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식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이후 개인적 경제 활동까지 제약 받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은 만큼 철저한 조사로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현장·서류 조사 등을 실시한 뒤 위원회를 열어 침해 여부를 결정, 통상 3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기관에 권고나 수사의뢰 등을 하게 되며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진정은 각하된다.

그는 아울러 지난 5월 흉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요청했다. 자신이 정말 조폭이었는데 아니었는지 진실을 가려보자는 취지로, "(홍 지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조폭 수괴도 아닌데, 그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여씨는 지난 4월 출간한 '모래시계'에 관한 '모래시계 검사'로 묘사된 홍 지사가 '조직원 영웅'이고 자신을 조폭 수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2만페이지 인쇄돼 판매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산단 협정 해지 투자자문사 나주시에 10억 반환" 판결

각종 잡음으로 나주시와의 산단단지 조성사업 관련 협정이 해지된 투자자문사에게 금용비용 중 사용하지 않은 10억원 대 잔액을 반환하도록 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8일 나주시가 투자자문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수수료 반환 소송에서 "A사는 시에 1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협정이 해지됐으니 A사는 금용 수수료 등 명목으로 선지급 받은 77억원 중 해지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을 나주시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반환 의무를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 지급된 비용은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왕곡면 일대에 미래 일반 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1년 5월 A사와 협정을 했다. 투자금 조달·지출·상환·분양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A사는 같은 해 77억원을 금용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일부를 지출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임성훈 전 나주시장, A사 대표 등 17명이 지난해 3월 기소됐으며 나주시는 신뢰 손상 등을 이유로 두 달 후 협정 해지를 통보하고 쓰지 않은 잔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편, A사는 나주시의 이행 거절로 자신들에게 예상된 투자 이윤을 얻지 못했으며 180억원을 지급하라고 나주시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행 거절이 아니라)적법한 해지 통보"라며 기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연상 여인과 모텔 간 고교생 지갑 습격

○인터넷 '친구 만들기' 카페에서 알게 된 연상의 여인의 지갑에 손을 댄 고교생이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서행.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양모(18)군은 지난 5월 오전 9시께 광주시 서구 품암동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회사원 A(20)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지갑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쟁겨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

○양군은 경찰 조사에서 "새옷을 사준다고 해서 모처럼 만나러 나왔는데 옷은 사주지 않고 자꾸 만소리만 하길래 지갑에 손을 댔다"면서 "안면을 뜬지도 두 달이 넘고 그동안 자주 만남을 가져왔는데 이런 일로 경찰에 신고할 줄 아는 나도 정말 몰랐다"면서 선처를 호소.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완도군 공고 제 2014-252호

"완도 해든리조트(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계획인가전 주민공람·공고

"완도 해든리조트(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약식평가)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4. 8. 19
완도군수

다 음

1. 사업개요

- 사업 명 : 완도 해든리조트(유원지) 조성사업
-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산 80번지 일원
- 사업면적 : 156,984㎡
- 사업시행자 : (주)해든 D&C
- 승인기관 : 완도군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4. 08. 19. ~ 2014. 09. 15.
- 공람장소 : 완도군 지역경제과 (☎061)550-5570)

3. 설명회 개최 및 장소

- 일 시 : 2014년 8월 26일, 27일
- 장 소 : 26일 - 망석리마을회관(14시), 27일 - 망석리마을회관(14시), 석장리마을회관(16시)

4. 의견제출

- 장 소 : 공람장소와 동일
- 방 법 : 서면 작성하여 (양식은 각 공람장소에 비치) 제출
- 의견제출대상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안의 주민
- 의견제출범위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피해와 그 감소방안
- 사업자와 주민 또는 주민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지역경제과 (☎061)550-5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직강 } 융심리학과 정서

일 시 2014년 8월 29일(금) 오후 06시부터 09시까지
2014년 8월 30일(토) 오전 10시부터 05시까지

장 소 광신대학교

교육비 • 12만원(책값 22,000원 별도)
• 10명이상 단체 등록시(22인까지) 교육비 9만5천원
• 22인까지 개인 선등록시 만원 할인

강 사 박종수 교수
• 강남대 심학과 교수
• 스위스 취리히 융 연구소 수석
• 한국정신분석심리학회 회장
• 목회상담학회 감독
• 한국독서치료학회 이사 및 독서치료 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민간자격/정서중심심리상담사 2급
(1단계에 해당, 2단계 후 2급 자격 취득 가능)

등록번호 2012-0547

혜 택 • 정서코칭 1급, 전문가 지원서 임상실습 5시간 인정
• 목회상담학회 교육시간 10시간 인정
• 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교육시간 10시간 인정

접수 및 문의 농협 355-0012-1260-13
kcfce@hanmail.net

※ 책등 단체로 주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2일까지 문의해 주십시오.
단체 주문한 책은 25일 월세에이내에 미리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대표이사 조인숙

☎062-652-0675, 010-8299-6237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89-16번지 5층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금리는 낮게 ↓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